그림 속을 넘나드는 아름다움

오케스트라 연주로 즐기는 가무악극 '화선, 김홍도' 국립극장서 7월 16일까지

'화선, 김홍도'의 한 장면. 풍속화첩을 넘기는 듯한 아름다운 무대가 30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과 한데 어우러져 펼쳐진다.

단원 김홍도(1745~?)는 안견, 장승업과 함께 조선의 3대 화가로 꼽힌다. 이들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화가는 김홍도인데 그의 그림 재주는 하늘로부터 타고났다고 할 만큼 모든 화과(畵科)에 능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던 김홍도는 평생의 스승이자 동료인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우고, 20살이 되기 전 도화서 화원이 됐다.

김홍도는 그림을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려도 아주 우리 맛이 우러나게 그렸다. 당시 문인 사대부들은 모든 것에 중국을 모범으로 삼고 산수나 사군자, 신선도 등 까지도 중국풍으로 그리는 시대였다. 김홍도는 달랐다. 우리 풍속이나 우리 강산을 그린 작품은 물론이고, 중국의 고사인물이나 정형산수 작품에서도 조선 고유의 색을 짙게 드러냈다.

이러한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넘기는 듯한 아름다운 무대가 30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과 한데 어우러져 펼쳐진다.

국립극장(극장장 임연철)은 7월 8~16일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인 가무악극 '화선, 김홍도'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무대에서 연다.

'화선, 김홍도'는 김홍도의 그림이 중심이 돼 이야기가 전개된다. 공연의 두 주인공 김동지와 손수재는 김홍도의 그림 속을 헤매며 이야기를 전한다. 김동지는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손수재는 꿈에도 그리는 이를 찾기 위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김홍도를 찾아 나선다. 무대는 '씨름터' '나루터' '장터' 등 마치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넘기듯 한 폭 한 폭 그림 같은 정경이 펼쳐진다. 김홍도의 그림이 활인화(活人畫)로 펼쳐지면서 관객들은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 들게 된다. 또한 22인의 국립국악관현악단과 10인의 서양 실내악, 정가 코러스까지 33명의 연주자가 극의 흐름에 따라 그림 속 악사가 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돼 감동을 배가 시킨다.

국가브랜드 공연인 만큼 국립 예술 단체 3곳이 참여했다.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과 마당극 · 연극의 대부인 연출가 손진책, 안무가 국수호, 작곡가 김대성, 음악감독 엄기영 등 국보급 제작진이 함께한다.

김홍도는 불교에 귀의해 기도로 아들을 낳은 뒤 한동안 불교 소재 그림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모시며 현륭원을 세울 때 현륭원의 원찰인 용주사의 후불탱화 제작에 참여해 조선 후기 불화의 명작 중 하나를 남기기도 했다. 입체감을 나타내는 음영을 넣어 독특하게 표현한 이 불화들은 기존의 화풍을 뛰어넘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공연기간동안 공연과 관련된 김홍도의 작품이 해오름 극장에 영인본으로 전시된다. 전시에는 공연에 등장한 김홍도의 작품 뿐 만 아니라 '무동'에 등장하는 악사들의 악기 등이 실물로 전시된다. (02)2280-4115 이나은 기자

새는 좌우 날개 아닌 온몸으로 난다

선판화가 이철수 작가 30주년 기념전

새는 온몸으로 난다 1.93×125, 2010.

30년 간 목판에 마음을 새겨온 이철수(57) 판화가가 30주년 기념전 '새는 온몸으로 난다'를 마련했다.

이웃에 대한 연민과 시대의 슬픔, 역사의 아픔, 청춘의 사랑, 사람들의 일상을 판화로 풀어냈다. 1981년 첫 개인전을 연 서울 관훈동 관훈갤러리에 다시 작품을 건다. 2006년 이후 6년 만의 개인전이기도 하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목판화가인 이철수는 폭압적인 사회에 보내는 저항의 언어들로, 서정적이면서도 격렬한 선묘판화와 처음 본격화하던 출판 미술운동 등 1980년대 내내 판화를 통한 현실변혁 운동에 매진했다. 그러던 그가 1988년 무렵 자기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판화 영역을 확대해가기 시작했다.

전시에서는 130여 점이 선보인다. 2005년 이후의 신작 55점과 1981~2005년에 만든 58점이 포함됐다. 구작 선정 기준은 그동안 대중이 특히 많이 기억하는 작품, 작가가 마음이 가는 작품, 민주화운동에 활용도와 효용성이 큰 작품 등이다. 전시는 7월 12일 까지. (02)733-6469 이나은 기자

창덕궁, 아름다운 덕을 펼치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문화재청 50주년을 맞이해 8월 28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과 1층 정보검색실에서 '창덕궁, 아름다운 덕을 펼치다'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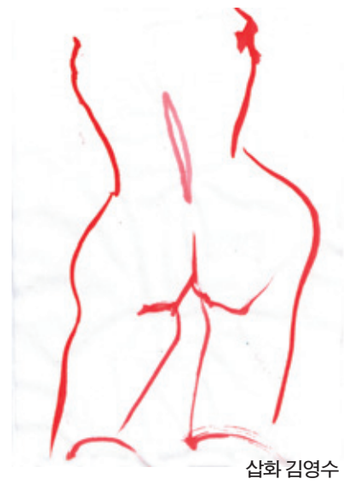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은 '고궁'을 주제로 한 최초의 특별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의 역사와 의미, 궁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 창덕궁은 건물 중심의 관람이었으나 이번 전시를 통해 창덕궁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창덕궁은 1405년(태종 5) 축조된 이래 조선시대 국정운영의 중심공간이자 왕실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사랑을 받았던 궁궐이다.

이번 전시에는 창덕궁의 역사, 공간배치의 특성, 영역별 · 전각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유물 100여 점과 건물내부 사진 및 영상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02)3701-7500 이나은 기자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③

제석의 탄생 1



삽화 김영수

여성과 남성, 인간과 신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제석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제석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매우 자세하고 강렬하게 한다. 인간이 보기에 거의 절대적인 힘과 복을 지닌 신(神)도 한때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언제 읽어도 흥미롭다.

부처님이 제석의 전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펼쳐진 곳은 바이살리다. 바이살리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우기를 보냈던 곳이며 또한 유녀(遊女) 암바팔리가 살던 곳이다. 한때 인간이었으나 감각적 쾌락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도리천의 주인이 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불교 경전 속 대표적인 창녀(娼女)가 있다면 단연 암바팔리이다. 하지만 창녀라고 해 그녀가 아무에게나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암바팔리는 바이살리 최고의 미녀이자 왕족들만 상대하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본디 고아였다. 망고나무 아래 버려진 것을 정원사가 데려다가 망고를 뜻하는 '암바'를 넣은 이름을 지어줬다. 그녀는 점차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해 바이살리의 왕자들이 모두 청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왕자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두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왕자들 모두와 공평하게 관계를 맺기로 하고 망고나무 숲에 있는 저택에서 홀로 살면서 궁중에 출근을 하는 창녀가 됐다. 암바팔리의 미모에 대한 소문은 바이살리 뿐 아니라 중인도 전역에 자자했다. 그녀는 부처님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까지 사로잡기에 이른다. 누구의 부인도 아니었던 암바팔리는 기꺼이 빔비사라왕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기도 했다.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에 머무시던 어느 날, 암바팔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해 부처님과 스님들을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공양을 대접할 것을 청했다. 부처님은 그녀의 신분을 알았음에도 기꺼이 초대를 수락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암바팔리를 보고 왕자들은 질투심이 솟구쳤다. 그들은 암바팔리를 방해하기 위해 수만 냥의 황금을 줄 테니 부처님 대신 자신들을 식사에 초대해달라고 했지만 암바팔리는 바이살리를 모두 주어도 싫다고 했다. 흥정에 실패한 왕자들은 암바팔리 대신 부처님을 찾아가 초대를 이틀 뒤로 미루어 줄 것을 부탁했다. 부처님은 이미 수락한 약속을 번복할 수 없다면서 왕자들의 부탁을 거절했다.

다음 날, 부처님은 스님들과 함께 암바팔리의 집으로 가서 그녀가 정성껏 마련한 공양을 먹고, 암바팔리는 기쁨 속에서 망고나무 숲에 있는 자신의 정원을 부처님께 바쳤다. 45년간 부처님은 많은 곳을 다니며 법륜을 굴리셨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중 암바팔리처럼 특별한 여인과의 인연이 있는 바이살리에서 욕계육천의 주인, 제석의 전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하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으로 재물과 사람을 쥐락펴락했던 암바팔리야말로 도리천이 자랑하는 욕망이 고스란히 인간화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바팔리는 훗날 아라한이 된 친 아들의 법문을 듣고 늦게 출가한다. 그녀는 비구니가 된 후, 위없이 아름다웠으나 부질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육신에 대한 끊임없는 화두를 던지며 수행에 몰두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다.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 썩 괜찮은 인간으로 살았던 제석의 전생은 다음 편에 계속 된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성범스님과 함께 보는 금강경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 – 밖에서 찾지 마세요.

저자 성범 스님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마음으로 바뀌어 집니다. 또한 마음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며 그리고 행복하기도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독송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라도 펴서 읽으면 명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이치를자세히 밝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교공부가 재밌어지며 아마도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괴로움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
是貴養氣시귀양기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행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한인연
엄선된 6년근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 · 향 · 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 · 체력증진 · 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特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地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良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 국민은행: 804201-01-210397 기세원 / 농협: 352-0207-2570-93 기세원
名品紅參 氣勢元
6년근 명품홍삼 기 세 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